

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으며, 모조분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은 결국 국내산 우유소비를 둔화시키고 그 부담이 낙농가에게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우리 낙농가들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규모를 30억원으로 확정, 낙농가의 원유대에서 원유kg당 1원씩 1년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낙농자조금의 위력은 모두가 이미 체험하고 있다. 앞으로 우유소비 둔화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수입유제품은 끊임없이 국내시장을 파고들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유의 본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확충과 수입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자조금법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로 금년 회기내의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 장치가 잘 갖추어진 기초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가 스스로가 시장개척에 참여하고,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국내산 원유로 생산되는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국민 소비자에게 전달, 이해시킴으로써 수입유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방어하고 우유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낙농가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참여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낙농자조금사업 추진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새삼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여해 주신 낙농가와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관계자, 그리고 적극 지원해 준 정부당국에 감사드리고,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준 유업체, 소비자에게도 감사와 함께 끊임없는 우유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낙농가들도 하루빨리 동참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 낙농가들이 꿈꾸고 있는 안정과 풍요가 충만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필자연락처: 02-433-8151〉

낙농자조금사업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윤재관

낙농자조금운영위원(협회부회장)

낙농자조금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짧은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분유재고량을 줄이고 폭락하였던 젖소송아지값을 회복시켜 안정기조를 되찾게 된 성과도 가져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농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겠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낙농자조금사업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희망의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보람찬 한해를 마무리했다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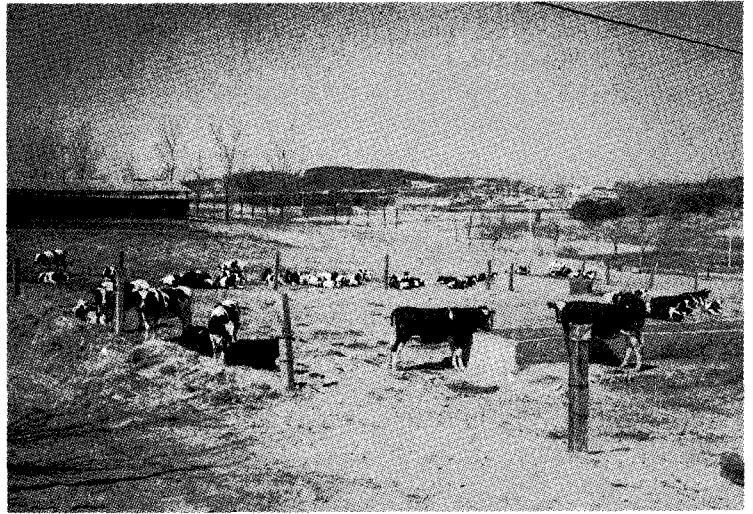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 IMF의 경제체제하에서 사료값의 폭등과 생산물인 축산물값의 폭락으로 한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던 우리들의 생산 기반을 슬기와 용기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세계화, 개방화, 개혁의 길목에서 우리가 자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그야말로 변화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경쟁력을 갖기위한 타 분야보다 앞서가기 위한 낙농자조금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많은 회원님과 조합 등에서 끝없이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결과 25억원이라는 소중한 기금이 조성되어 우유소비 촉진 홍보 확대와 어렵게 사시는 불우 이웃돕기 등 「사랑의 우유 나누기」운동으로 값지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유소비 촉진 홍보는 낙농인들의 장래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우리우유를 사랑하고 애용할 때 어떤분야의 산업보다도 한발 앞선 체계를 갖추었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최고의 선으로서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일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은 7월부터 연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농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겠다.

짧은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분유재고량을 줄이고 폭락하였던 젖소송아지값을 회복시켜 안정기조를 되찾게 된 성과도 가져왔다. 안타깝게도 불참농가를 비롯하여 특히 선봉장이 되어야 할 협동조합의 일부가 불참하는 사태는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안정을! 행정과 조합은 지도와 견제를! 낙농가들은 자구 노력을!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낙농자조금사업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간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불참했던 분들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이해득실을 떠나 동참하여 어떤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공동으로 힘을 결집할

때 극복할 수 있다.

정보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비전이 있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낙농자조금사업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2000년의 새해를 앞에 나가 맞읍시다. 아울러 모든 낙농가들이 금년도에 설계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꿈이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457-363-2283〉

